

# 성결 법전의 땅

김선종\*

## 1. 서론

구약성경의 첫머리를 이루는 책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경, 오경 혹은 육경의 틀로 이해하건, 아니면 더 나아가 구경의 틀로 이해하건, 땅은 구약 성서 신학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도식 속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땅에 대한 연구는 신명기 혹은 신명기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반면 레위

---

\* 한남대학교 전임강사, 구약학.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본 글의 영문 초고(The Land in the Priestly Texts)를 읽고 조언해 주신 얀 요스텐(Jan Joosten) 교수님과 2010년 9월 16일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 발표하도록 초대해 주신 민영진, 김정우 교수님께 감사한다.

- 1) 구약성서의 분류와 땅의 관련에 대한 연구와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T. Römer, “La construction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Investigations préliminaires sur la formation des grands ensembles littéraires de la Bible hébraïque,” T. Römer and K. Schmid, eds., *Les dernières rédactions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BETL 203 (Leuven: Peeters, 2007), 9-34를 보라.
- 2) 장석정, “신명기 1-3장에 나타난 땅의 개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04), 5-24; 이미숙, “신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 양식과 땅 사상,” 『구약논단』 15 (2009), 51-68; J. G. Plöger,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e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BB 26 (Bonn: Hanstein, 1967), 60-100; P. D. Miller,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 23 (1969), 451-465; W. D. Diepold, *Israels Land*, BWANT 95 (Stuttgart: Kohlhammer, 1972), 76-104; L. Perliitt, “Motive und Schichten der

기를 포함한 제사장 문서(P) 및 성결 법전(H)에 나타난 땅은 신명기에 나타난 땅에 비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결 법전에 나타난 땅에 대한 연구는 비단 특정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레위기와 신명기의 관계 등 오경 형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벨하우젠(Wellhausen)의 전통적인 역사 비평 가설을 따르면 오경에서 가장 후대에 기록된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은 신명기를 비롯한 그 이전 문서들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렇다면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의 저자는 이미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을 수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sup>3)</sup>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만일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개념과 충돌할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 체계가 요청된다. 성결 법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전 자료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편집한 결과라는 가정 아래 이 법전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을 연구할 경우, 성결 법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관점, 관심사 및 신학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결 법전 자체의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틀 안에서 본문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성결 법전의 신학 및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 연구에서 ‘땅’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는 라이트(Wright)와 요스튼(Joosten)의 연구는 우리의 시선을 끈다.<sup>4)</sup> 이들은 과거 신명기 및 신명기 문서에 제한된 땅에 대한 연구를 성결 법전의 영역에 확장·발전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

---

Landtheologie im Deuteronomium,” G. Strecker, ed., *Das Land Israel in biblischer Zeit*, GTA 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46-58; J. M. Hamilton, “Hā’Ares in the Shemitta Law,” *VT* 42 (1992), 214-222.

3) J. A. Sanders,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45 참조.

4) C. J. H.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 Brill, 1996).

그들 문서 자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을 따르면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바른지 그른지를 드러내는 척도라는 것이다.<sup>5)</sup> 이들은 물질적 피조물로서의 땅은 단지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personification)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를 달리 말하면 땅이 인격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일종의 신학적 표현 양식 혹은 진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이 단순히 과거 이전 문서들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넘어, 그 자체의 언어와 이념적 틀 안에서 땅의 기능을 강조하고 새롭게 밝힌 것은 그들의 큰 업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결 법전과 이 법전을 낳은 제사장 문서<sup>7)</sup>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을 때, 땅은 비단 저자에 의해 ‘인격화’되어 표현되는 기술 양식이 아니라, 실제 ‘인격’(person)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는 성서 본문을 무엇보다 우선 기록된 그대로, 또 그 본문이 위치한 자리에서 이해하려 시도할 때, 기존에 시도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읽을 수 있고 또 저자가 가지고 있었을 본래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특별히 성결 법전에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땅의

- 
- 5) C. J. H.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150: "the focus of attention is not the land per se, but the land as the 'middle term' between Yahweh and Israel, the land as the tangible symbol and ground of his blessing and claim on them and their relationship to him."
- 6)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152-154.
- 7) P와 H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위해서는 T. Römer, "De la périphérie au centre: Les livres du Lévitique et des Nombres dans le débat actuel sur le Pentateuque," T. Römer, ed.,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BETL 215 (Leuven/Paris/Dudley: Peeters, 2008), 4-22를 참고하라.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레위기 18장(20장), 26장, 25장(27장)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성결 법전에 나타난 땅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레위기의 세 본문(18장 (20장); 26장; 25장(27장))은 땅에 대한 동일한 주제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땅이 지은 죄’라는 주제를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단지 ‘인격화된 땅’(land personified)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주체’ 혹은 ‘인격체’로서 땅을 정의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레위기 18장, 26장, 25장의 순서대로 본문을 읽을 텐데, 이는 첫째로, 18장과 26장에서 땅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술되고 있는 반면,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이들에 비해 추상적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 우리들은 구체적인 논의에서 추상적인 논의로 우리의 사고를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로, 주제적인 측면에서 레위기 18장과 26장은 땅이 그 옛 거주민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논하고 있고,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법은 땅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뒤의 본문은 앞의 두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주석적으로 난해한 문제들(‘땅이 지은 죄’ 등)에 대하여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위의 본문을 우리가 제안한 순서대로 살펴보자.

### 2.1. 레위기 18장/20장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도로서의 성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은밀한 부분에서까지 실천해야 하는데,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sup>8)</sup>

많은 주석가들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타난 근친상간과 관련된 본문(레 18:1-23; 20:6-21)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를 연구하거나 근친상간의 대상 중 딸이 명시되지 않은 까닭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sup>9)</sup>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내용의 다음(레 18:24-30; 20:22-26)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정결하지 못한 성생활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 뿐 아니라 땅 역시 더럽히며 이는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땅이 토해낼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8) M.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 53 (1999), 341-350을 따르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생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9장을 감싸 안음으로 백성들이 거룩함을 성취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한다.

9)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벗은 몸(에르바트)에 관한 10계명’(레 18: 7-16)," 「구약논단」 23 (2007), 120-146;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25 (2009), 167-191; K. van der Toorn,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SHCANE 7 (Leiden: Brill, 1996), 66, 195; J. Joosten, "La non-mention de la fille en Lévitique 18. Exercice sur la rhétorique du Code de Sainteté," *ETR* 75 (2000), 415-420; D. Luciani, "La fille perdue et retrouvée de Lévitique 18," *ETR* 76 (2001), 103-112.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개역개정 레 18:24-28; 20:22 참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땅과 관련된 표현(‘그 악’, ‘더러워진 땅’, ‘땅이 받는 벌’)과 땅이 거주민을 토해내는 행위<sup>10)</sup>이다.

먼저 본문을 따르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부정행위는 땅을 더럽히는데, 이는 곧 ‘땅이 지은 죄’(עוֹנוֹ)에 해당하며 이러한 땅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비유적인 해석으로서 땅이 지은 죄는 사실 땅 위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땅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비유적 해석이 가능한 것은 땅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이 이사야의 구원 선포의 단락에서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נִרְצָה הַעֲוֹנוֹתָ). 그의 모든 죄(הַטְּאוֹתָיו)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개역개정 사 40:2).

이 본문에서 ‘그 죄악’, 즉 ‘예루살렘의 죄악’은 분명히 ‘예루살렘

---

10) 장석정, “포로 사건 경교와 땅의 개념,” 『구약논단』 30 (2008), 170, 각주 5: “땅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11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1) J. Milgrom, *Leviticus 17-22*, AB 3A (New York: Doubleday, 2000), 1580: “The land, of course has not sinned but it has become polluted by the iniquity of its inhabitants.” 흥미롭게도 노트(Noth), 웬햄(Wenham), 게르스틴베르거(Gerstenberger), 하틀리(Hartley) 등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땅의 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거주민의 죄악'을 뜻한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2절에 나타난 비유적인 용례가 곧 레위기의 표현 역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독자들은 레위기 본문을 이사야의 구절과 비교하여 해석하기에 앞서,<sup>12)</sup> 우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레위기의 표현이 법률적 문맥 가운데 등장한다면, 동일한 이사야의 표현은 구원 선포의 문맥에서 비유적으로 선포되고 있다.<sup>13)</sup>

레위기 본문에 대한 이러한 비유적인 해석이 그리 설득력이 없는 까닭은 본문은 또다시 땅이 받을 벌에 대해, 또한 땅을 더럽힌 거주민들을 '토한다'는 난해한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듯이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땅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단순한 문학적 비유로 이해하는 해결 방식<sup>14)</sup>은 단순하고 쉬운 해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사장 문서 및 성결 법전의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의 개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땅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성급하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대답에 비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에 대한 독특한 제사장 신학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 12) 레위기 26:40-41, 43과 이사야 40:2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이고 주제적인 유사점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A. Anderson, "From Israel's Burden to Israel's Debt: Towards a Theology of Sin in Biblical and Early Second Temple Sources," E. G. Chazon, D. Dimant, and R. A. Clements, eds., *Reworking the Bible: Apocryphal and Related Texts at Qumran*, STDJ 58 (Leiden: Brill, 2005), 19-24; idem, *Sin: A History* (New He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43-54.
- 13)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1<sup>4</sup>), 31; J. Blenkinsopp, *Isaiah 40-55*, AB 19A (New York: Doubleday, 2000), 180.
- 14)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152-154.

땅은 단지 거주민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묘사되어 있다. 즉, 더럽혀진 주민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명기의 역사관과 극명히 구별된다.

여호수아서 이하 신명기 역사서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따르면 가나안 땅 스스로 이스라엘 이전 원주민들을 내어 쫓는다. 즉,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전 원주민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빈 공간을 차지할 따름이라는 것이다.<sup>15)</sup> 이는 곧 만일 가나안 땅의 이전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레위기 18:26에도 암시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גֵּרִים)’도 가나안 땅의 정결함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레위기 18장 5절에 명시되어 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 전반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주체는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나 후반절에서 더 나아가 레위기 저자는 ‘사람’(אָדָם)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인류가 야훼,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사장 신학의 큰 공헌이다.<sup>16)</sup>

15) J. Milgrom, *Leviticus 17-22*, 1577.

16) 레위기 18:15이 구약성경 및 쿠틀란을 거쳐 신약 사상에 이어지는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J. Joosten, “‘Fais cela et tu vivras’. Un motif vétérotestamentaire et ses échos néotestamentaires,” *RSR* 82 (2008), 331-341.

이러한 레위기의 사상은 신명기의 사상과 매우 다르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거룩한 백성’(7:6; 14:2, 21; 26:19; 28:9 등)이다. 그러나 레위기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적으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레 19:2). 신명기가 혈통이라는 관점 아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한다고 있는 반면, 레위기는 땅이라는 관점 아래 ‘원주민’(אֲזָחִים)<sup>17)</sup>과 ‘거류민’(גֵּרִים)을 구분한다(레 16:29; 17:15; 18:26; 19:34; 24:16; 24:22 등).<sup>18)</sup>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면,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땅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에서는 땅 위에 존재하는 땅의 주인과 그 땅에 객으로 거하는 거류민 사이의 차별은 상당히 줄어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준거, 즉 순종하면 땅에 거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난다는 원칙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철저히 적용된다.

## 2.2.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법전의 구조 가운데 구체적인 여러 법률들을 명시한(레 17-25; 신 12-27) 후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경우 복을 받고, 어길 경우 저주를 받는다.

레위기 26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은 다음의 세

17) 『개역』, 『개역개정』 성경은 ‘에즈라흐’를 ‘동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혈통 개념이 아니다. 『표준개정』과 『새번역』의 ‘본토 사람’이나 『공동』과 『공동개정』의 ‘본토인’이 본래 히브리어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다.

18)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1972), 229, 각주 5 참조.

구절인데, 이는 첫째로,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 ‘땅의 죄’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둘째, 땅이 지은 죄와 용서에 대한 암시를 얻는 점에서 그러하며, 마지막으로 땅과 관련된 안식년 율법 규정을 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sup>19)</sup>으로 쫓겨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8장의 연속성 상에서 나타난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개역개정 레 26:34-35).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עוונם)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עון אבותם)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אֲדַעְתֶּם) (개역개정 레 26:40-41).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וְהָרְחִיק)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אֲדַעְתֶּם). (개역개정 레 26:43).

첫째로, 레위기 26장에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우리가 미해결 상태로 놓은 18장에서의 ‘땅이 지은 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백성들의 죄’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하여, ‘땅의 죄’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 신명기 28장이 ‘원수’(בֵּיא)를 언급하는 반면, 레위기 26장은 ‘원수의 땅’(אֲדַעְתֶּם אֶרֶץ)을 말한다.

18장에서 땅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면 굳이 26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고,<sup>20)</sup> 혹시 성결 법전의 저자가 ‘땅의 죄’라는 표현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땅이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악한 행위를 뜻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둘째로, 26장에서도 18장과 마찬가지로 ‘땅이 지은 죄’라는 사고 방식에 대해 암시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레빈(Levine)은 레위기 26:43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징벌을 받고 용서를 받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땅 역시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 포로기라는 심판을 받고 후에 이러한 죄를 용서 받았다면, 땅 역시 안식년 율법을 어긴 죄를 지었지만 황폐하게 된 이후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다.<sup>21)</sup> 그의 관찰은 18장에서 땅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실제로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좋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레빈은 어떤 의도와 어떤 신학적 근거에서 성결 법전의 저자가 ‘땅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발전시키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땅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타나는 ‘땅이 쉬고 안식’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땅이 쉰다는 표현은 단순히 농업 방식으로서 휴경에 대한 비유적

20) 레위기에 18회 나타나는 ‘죄’의 용례 가운데, 단지 레위기 18:24만이 땅의 죄를 가리킨다.

21) B. A. Levine,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79: “In verse 43 of our Epilogue both the land and the people atone for their sins: the people, through submission to God after the prolonged sufferings of the exile; and the land, by compensating for its neglected sabbatical year [...] . Because the land was not allowed to lie fallow every seventh year while the Israelites lived in it, it will now lie desolate involuntarily, bereft of its inhabitants.” 참조, G. A. Anderson, “From Israel’s Burden to Israel’s Debt,” 22.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땅이 실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레위기의 안식년은 단순히 구약 주변 세계에서 흔히 이루어져 왔던 농업 방식으로서의 땅의 휴경을 뜻하지 않는다. 땅의 생산성을 보존하기 위한 휴경법이 결국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한다면, 레위기의 안식년은 땅 자신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에 해당하며 창세기 1장의 창조 신학을 역사 가운데 구현하도록 시도한다. 인간 이전에 창조된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듯이,<sup>22)</sup> 인간의 농업 활동과 상관없이 7년째 스스로 나는 식물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다.<sup>23)</sup>

위의 세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가나안 땅의 옛 주민들이 겪을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 주민들이 부정한 성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고, 또 땅을 더럽힘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안식년을 무시함으로써 ‘원수들의 땅’으로 쫓겨나고 삼킴(גִּזְמָה)을 당한다(레 26:38). 비록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와 같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어 사람이 거하지 않고 원수들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다는 표현은 곧 앞의 장들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도 성결 법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과 기능은 신명기와 사뭇 다르다. 신명기 역사서를 따르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

22)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창 1:11)에서 ‘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אָשַׁר’가 저시브(jussive)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 역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하나의 주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3)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이 제사장 문서의 창조 신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Sun-Jong Kim,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6-7),” *ZAW* 122 (2010), 33-43; idem, “The Group Identity of the Human Beneficiaries in the Sabbatical Year (Lev 25:6),” *VT* 61 (2011), 71-81.

잡혀간 사람들은 사회 지도 계층이었다. 반면 하층민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한다(왕하 24:14). 이러한 역사 보도는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아 땅이 안식을 하게 되었다는 레위기의 보도와 상충된다. 이는 곧 레위기는 구체적인 역사 추이 및 사건 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히브리 성경(타낙)의 실제적인 마지막 구절<sup>24)</sup>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 36:21에 인용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이해에 안식년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sup>25)</sup>

『개역개정』 레 26:34-35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개역개정』 대하 36: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릴 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 땅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빼앗길 포로의 운명을 전조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안식할 권리를 보장하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다<sup>(34절)</sup>. 즉, 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식년법을 어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추방당한다.<sup>26)</sup>

24) 에스라서의 첫 두 구절(스 1:1-2)과 동일한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대하 36:22-23)은 일반적으로 후대의 첨가로 여겨진다. 참조,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419.

25) 레위기 26:34-35와 역대하 36:21의 관계에 대해서는 S. Japhet, *I & II Chronicle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1075-1076;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481; G. A. Anderson, *Sin: A History*, 79를 참조하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비극적 역사 이해는 곧 안식년 제도의 수행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 자체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가 열려진 문제로 남겨 놓았던 땅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 즉 ‘땅이 지은 죄’, ‘땅이 더럽혀짐’, ‘땅이 거주민을 토해냄’, ‘땅이 벌을 받음’ 등과 같은 표현들이 과연 단순히 땅을 인격화하여 비유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성결 법전의 저자는 실제로 땅을 인격체로 이해하여 땅이 위와 같은 여러 행위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3. 레위기 25장(27장)

#### 2.3.1. ‘나지르’(נִזְיָר)로서의 포도나무

우리가 이 글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성결 법전의 땅’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바로 레위기 25:1-7의 안식년 본문이다. 출애굽기 23:10-11과 신명기 15:1-12의 칠년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레위기는 땅의 문제를 다룬다. 레위기의 안식년 법을 따르면, 땅은 제7년이 되는 해에 쉬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 자체를 위한 휴식이다.

---

26) 땅의 안식이 안식년만을 뜻하는가 아니면 희년 역시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J. Milgrom, *Leviticus 23-27*,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2325.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레위기 26장이 말하는 땅의 안식은 안식년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안식년과 희년의 기원 및 관계, 최종 편집으로 인한 본문의 자리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sup>1</sup>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2</sup>“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sup>3</sup>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sup>4</sup>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sup>5</sup>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ענבי נירר)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sup>6</sup>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sup>7</sup>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는 5절의 ‘나지르’라는 단어이다. 우리말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를 ‘가꾸지 아니한’, 『공동번역 성서』는 ‘절로 열린’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민수기 6장에 규정되고 있는 ‘나실인’을 뜻한다.<sup>27)</sup> 서약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되며, 또한 시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민 6:1-6). 이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사람을 지칭하는 종교 용어가 포도나무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기묘함 때문에 대부분 현대어 성경은 이 단어를 ‘자르지 아니한’으로 번역하고,<sup>28)</sup> 또 대부분의 주석가들 역시 이러한 번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sup>29)</sup>

27)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나지르’의 16회 용례 중, 레위기 25:5만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 글에서 히브리어 ‘나지르’가 사람을 가리킬 경우 ‘나실인’으로, 포도나무 혹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경우 ‘나실인’과 구별하기 위해 ‘나지르’로 음역한다.

28) untended (NIV), undressed (King James), unpruned (NRSV), untrimmed (New Jerusalem Bible, JPS).

29) M. Noth,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162; B. A. Levine, *Leviticus*, 170; J. Milgrom, *Leviticus* 23-27, 2158-2159; D. Luciani, *Sainteté et pardon, vol.1 : Structure littéraire du Lévitique*,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간과되고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 전승에 기인하는 고대 나실인 제도를 잘 알고 있었을 레위기 25장 안식년 법의 저자는 왜 포도나무를 정의하기 위해 굳이 이러한 제의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최근 르페브르(Lefebvre)와 요스텐은 이 낱말을 문자 그대로 ‘나지르’로 번역함으로써 이 단어가 본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비유적 의미를 밝히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해석을 따르면, 레위기 25장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지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법률 규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안식년에서 포도나무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이처럼 제의와 관련된 단어가 안식년 법에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결 법전의 땅에 대한 신학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땅을 나지르로 묘사함으로써, 안식년 법의 제정자는 안식년 동안 어떠한 사람에게도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포도나무를 떠올리도록 한다. 즉 독자들은 포도나무에 결합된 ‘나지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서약 기간 동안 자르지 않아 길게 늘어진 나실인의 머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사실 포도나무에서 나실인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나실인에게 금지된 포도나무가 자연물로서의 나실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31)</sup> 포도나무를 나실인으로 묘사함으로써,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은 안식년 기간 동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2)</sup> 그러나, 사실 안식년 동안 나지르로 여겨지는 것은

---

BETL 185 B (Leuven/Paris/Dudley: Peeters, 2005), 473 등.

30) J.-F. Lefebvre, *Le jubilé biblique. Lv 25 - exégèse et théologie*, OBO 194 (Fribourg: Editions Universitaires, 2003), 23; J. Joosten, “La persuasion coopérative dans le discours sur la loi: Pour une analyse de la rhétorique du code de sainteté,” A. Lemaire, ed., *Congress Volume Ljubljana*, SVT 133 (Leiden/Boston: Brill, 2010), 393.

31) 이러한 이유로 G. B. Gray, *Numbers*, ICC (Edinburgh: Varda Books, 1903), 350은 레위기 25:5에서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2) J. Joosten, “La persuasion coopérative dans le discours sur la loi: Pour une analyse

비단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다. 환유(metonymy)적으로 안식년 동안 자라나는 모든 식물이 나실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제7년째 해에는 모든 식물들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저자의 이러한 독특한 단어 선택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 큰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한다. 하나님께 분리된 자로서, 포도나무 뿐 아니라 땅 역시 넓은 의미에서 나지르로 인식될 수 있다. 모든 식물들이 땅의 머리카락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3)</sup> 만일 이러한 신학적 직관이 옳다면, 우리는 마치 나실인이 특별한 서원 기간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땅 역시 안식년의 1년, 혹은 평생 동안(레 25:23)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3.2. ‘나지르’로서의 땅

나지르를 땅으로 여기는 해석은 단순히 필자의 개인적인 상상력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는 레위기 27:16-24에서 나실인 서약과 땅의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유비에 대한 밀그롬(Milgrom)의 관찰을 인용해 보자.

An even more illuminating comparison with the temporary Nazirite is the land dedicated to the sanctuary (Lev 27:16). Naziriteship and the dedication of land to the sanctuary are both votive dedications (Lev 27:16; Num 6:2) that are in force for a limited period, the land

---

de la rhétorique du code de sainteté,” 393-394.

33) 레위기 25:5에 나타나는 “נִזְרִיךְ”의 마소라 모음 부호는 복수형(나실인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음들은 단수 형태(나실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혼합된 형태(formae mixtae)에 대한 문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F. E. König, *Historische-kritisches Leb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II (Leipzig: J. C. Hinrichs, 1895), 356-357; J. Joosten, “A note on the anomalous jussive in Exodus 22:4,” *Textus* 25 (2010), 9-16.

reverting to its owner on the Jubilee and the Nazirite reverting to his lay status upon the termination of his vow (Lev 27:21, by implication; Num 6:13).<sup>34)</sup>

물론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 모든 땅의 봉헌을 말하지 않고, 단지 밭 혹은 성전에 바쳐진 땅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이스라엘 땅을 나지르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에 바쳐진 땅이 서약으로 인한 한시적인 나실인에 해당한다면, 이스라엘 땅 자체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레 25:23) 종신 나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나지르로 이해할 경우, 우리가 서론에서 제기한 땅과 관련된 많은 표현들과 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나실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고, 이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부정의 길(via negativa)에 해당한다. 나실인과 마찬가지로 나지르로서의 땅은 자신의 정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sup>35)</sup>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지르로서 땅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레 18:25; 민 6:7, 12). 물론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땅은 그 거주민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결 법전의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래적인 정결함을 상실하는 죄에

34) 두 본문 간의 또 다른 유사점들을 위해서는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355-356을 참조하라.

35) 성결 법전에서 성소가 거룩한 반면, 이스라엘 땅은 정결하다.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176-178 참조.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땅의 죄’는 비단 은유적인 의미에서 ‘백성의 죄’를 상징하지 않는다. 이는 땅이 자신의 정결함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뜻한다.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표현은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땅이 거주민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질 경우, 그는 주민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부정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성결 법전의 독특한 표현은 그 신학 체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실인이 일반인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듯이, 이스라엘 땅 역시 다른 땅들과 구분된다. 성결 법전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확장된 성소로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6)</sup> 제사장 문서가 성소의 거룩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성결 법전은 이스라엘 땅의 정결함을 강조한다. 이 법전을 따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스라엘 온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땅은 언제나 자신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성소가 더럽혀지고(레 20:3)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곳에 거하지시 않는다(민 35:34). 다시 말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인간 거주민과 더불어 땅의 창조주마저 쫓아내게 된다(겔 8:6; 애 2:7; 참조, 레 26:31). 이는 곧 하나님, 땅, 백성이 공동 운명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백성은 비단 성소 안에서만 아니라 성소 밖에서의 모든 세속적 삶에서도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sup>37)</sup>

---

36)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176-178.

37)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 3. 결론

앞에서 우리는 레위기 18장(20장), 26장, 25장(27장)을 중심으로 성결 법전의 땅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단지 인격화된 것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실제 독립된 인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을 때, ‘땅이 지은 죄’, ‘땅이 더럽혀짐’, ‘거주민을 내어 쫓는 땅’, ‘땅이 안식함’ 등의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결 법전에서 ‘나지르’로서의 땅이 거주민의 죄로 인해 자신의 정결함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죄에 해당하며, 이럴 때 하나의 주체로서 땅은 자신을 더럽힌 거주민을 내어 쫓는다. 이러한 성결 법전에 나타난 땅의 개념과 기능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 및 기능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그 자체의 신학과 언어 가운데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결 법전의 땅의 개념 및 기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고대 제사장의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학적 교훈을 주는가?

먼저, 이러한 성결 법전의 땅의 개념은 이 법전의 사상적 모태가 되는 제사장 문서와, 성결 법전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중 신앙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사장 문서의 창조 이야기(창 1:1-2:4a)를 따르면 땅은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간섭 없이 다른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땅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민중 신앙을 반영한다.<sup>38)</sup> 최근 쉬뢰어(Schroer)는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에서 지나치게 강조된 피조물의 비신화화를 비판하며 구약성서에 반영된 민중 신앙에 드러나고 있는 창조물의 신성(numinosity)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sup>39)</sup>

38) A. Dietrich, *Mutter Erde: Ein Versuch über Volksreligion* (Berlin: Teubner, 1925) 참조.

39)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피조물의 신성에 대한 연구와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S. Schroer, “The Forgotten Divinity of Creation: Suggestions for a Revision of Old

오늘날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른 생태계 문제에 직면하여, 일부 학자들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혹은 ‘정원사’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미 고대 이스라엘의 성결 법전 저자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인간관을 넘어, 땅은 인간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될 대상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토하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는 주체로 그리고 있다. 인간에게 양식을 주지만(창 1:29), 또 반대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성결 법전의 땅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라야, 우리 인류에게는 작은 희망이 있다.

### <주요어>

땅, 백성, 성결 법전, 나지르, 안식년.

### <Key words>

Land, People, Holiness Code, Nazirite, Sabbatical Year

\* 접수일 2010년 9월 17일, 수정일 201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16일

## 참고문헌

-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 이미숙, “신 10장 12절 - 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 「구약논단」 15 (2009), 51-68.
-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 장석정, “신명기 1-3장에 나타난 땅의 개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04), 5-24.
- 장석정, “포로사건 경고와 땅의 개념,” 「구약논단」 30 (2008), 167-184.
-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25 (2009), 167-191.
-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벗은 몸(에르바트)에 관한 10계명 (레 18: 7-16),” 「구약논단」 23 (2007), 120-146.
- Anderson, G. A., “From Israel’s Burden to Israel’s Debt: Towards a Theology of Sin in Biblical and Early Second Temple Sources,” E. G. Chazon, D. Dimant, and R. A. Clements, eds., *Reworking the Bible: Apocryphal and Related Texts at Qumran*, STDJ 58, Leiden: Brill, 2005, 19-24.
- Anderson, G. A., *Sin: A History*, New He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Blenkinsopp, J., *Isaiah 40-55*, AB 19A, New York: Doubleday, 2000.
- Diepold, W. D., *Israels Land*, BWANT 95, Stuttgart: Kohlhammer, 1972.
- Dietrich, A., *Mutter Erde: Ein Versuch über Volksreligion*, Berlin: Teubner, 1925.
- Douglas, M.,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 53 (1999), 341-350.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Gray, G. B., *Numbers*, ICC, Edinburgh: Varda Books, 1903.
- Hamilton, J. M., “Hā’Āres in the Shemitta Law,” *VT* 42 (1992), 214-222.
- Japhet, S., *I & II Chronicle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Joosten, J., “‘Fais cela et tu vivras’. Un motif vétérotestamentaire et ses échos

- néotestamentaires,” *RSR* 82 (2008), 331-341.
- Joosten, J., “A note on the anomalous jussive in Exodus 22:4,” *Textus* 25 (2010), 9-16.
- Joosten, J., “La non-mention de la fille en Lévitique 18. Exercice sur la rhétorique du Code de Sainteté,” *ETR* 75 (2000), 415-420.
- Joosten, J., “La persuasion coopérative dans le discours sur la loi: Pour une analyse de la rhétorique du code de sainteté,” A. Lemaire, ed., *Congress Volume Ljubljana*, SVT 133, Leiden/Boston: Brill, 2010, 381-398.
- Joosten, J.,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 Brill, 1996.
- Kim, S.-J.,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 6-7),” *ZAW* 122 (2010), 33-43.
- Kim, S.-J., “The Group Identity of the Human Beneficiaries in the Sabbatical Year (Lev 25:6),” *VT* 61 (2011), 71-81.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 König, F. E., *Historische-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II, Leipzig: J. C. Hinrichs, 1895.
- Lefebvre, J.-F., *Le jubilé biblique. Lv 25 - exégèse et théologie*, OBO 194, Fribourg: Editions Universitaires, 2003.
- Levine, B. A.,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Luciani, D., “La fille perdue et retrouvée de Lévitique 18,” *ETR* 76 (2001), 103-112.
- Luciani, D., *Sainteté et pardon, vol.1 : Structure littéraire du Lévitique*, BETL 185 B, Leuven/Paris/Dudley: Peeters, 2005.
- Milgrom, J., *Leviticus 17-22*, AB 3A, New York: Doubleday, 2000.
- Milgrom, J., *Leviticus 23-27*,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 Milgrom, J.,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iller, P. D.,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Land,” *Int*

23 (1969), 451-465.

Noth, M.,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Perlitt, L., "Motive und Schichten der Landtheologie im Deuteronomium," G. Strecker, ed., *Das Land Israel in biblischer Zeit*, GTA 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46-58.

Plöger, J. G.,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BB 26, Bonn: Hanstein, 1967.

Römer, T., "De la périphérie au centre: Les livres du Lévitique et des Nombres dans le débat actuel sur le Pentateuque," T. Römer, ed.,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BETL 215, Leuven/Paris/Dudley: Peeters, 2008, 3-34.

Römer, T., "La construction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Investigations préliminaires sur la formation des grands ensembles littéraires de la Bible hébraïque," T. Römer and K. Schmid, eds., *Les dernières rédactions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BETL 203, Leuven: Peeters, 2007, 9-34.

Sanders, J. A.,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Schroer, S., "The Forgotten Divinity of Creation: Suggestions for a Revision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the 21th Century," A. Lemaire, ed., *Congress Volume Ljubljana*, SVT 133, Leiden/Boston: Brill, 2010, 321-337.

van der Toorn, K.,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SHCANE 7, Leiden: Brill, 1996.

Westermann, C.,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1<sup>4</sup>.

Williamson, M.,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Wright, C. J. H.,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초록>

## 성결 법전의 땅

김선종

(한남대학교 전임강사)

지금까지 구약신학에서 땅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명기 및 신명기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가 성결 법전에 나타난 땅을 이 법전의 신학적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신명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신명기 및 신명기 역사서에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면, 반대로 성결 법전에서 땅은 스스로 거주민을 받아들이고 내어 쫓는다. 독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땅의 개념에 대해 존재하는 명백한 차이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역사비평 가설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받는다.

최근 성결 법전의 땅에 대한 연구에서, 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물로서, 인격화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 법전 본문에 나타난 땅이 행하는 기능을 살펴볼 때, 이 법전의 저자는 땅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드러내고 있다. 나지르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스라엘 땅은 자신이 창조된 당시 부여받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자신의 거주민을 내어 쫓음으로 황폐화 된다.

이러한 성결 법전에 나타난 땅의 개념은 우선 이 법전을 낳은 제사장 문서의 창조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동시에 생명을 지니고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로서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중 신앙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땅이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성결 법전의 언설을 단지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양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인간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성결 법전이 보여주는 땅에 대한 신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현대인들에게 땅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권리와 땅에 대한 경외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다.

<Abstract>

## The Land in the Holiness Code

Lecturer. Sun-Jong Kim  
(Hannam University)

Until now in the Old Testament theology, the study on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land has been made mainly in the domain of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When we understand the land in the framework of the Holiness Code, we see that there are quite different aspects between the concept of the land in the Holiness Code and that of Deuteronomy. Whil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define the land as the object of Israel's conquest, in the Holiness Code it is the land that accepts and expels the people. This obvious difference that exists between two law codes requires the reader to reconsider the hypothesis of the traditional historical criticism.

Recent studies on the land of the Holiness Code interpret the land as a mediator between God and humankind and as a personified being having symbolic meaning. However, the examination on the function of the land in the Holiness Code reveals that the author of this law code describes the land as an independent person and a subject which drives the history of Israel. As Nazirite and as the sanctuary of God, the land

of Israel should maintain its purity given at the time of creation. If not, it is punished by its Creator and devastated by spewing its residents.

The concept of the land in the Holiness Code is based upon the creation theology of the priestly code that has produced the first law code. At the same time, the aspect of the land as the mother who bears the life and conceives another lives reflects the popular faith of Israelite people. When we consider the discourse of the Holiness Code on the land having a life and person as a simply literary and symbolic expression, we make a mistake to interpret the biblical passages anthropocentrically. The theology of the land in the Holiness Code demands modern people, who want to dominate and exploit the created world by God, to restore the right of the land and to respect other creatures.

